

97' 대선과 한국정치의 변화

③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정당

일반서민이 정치주체로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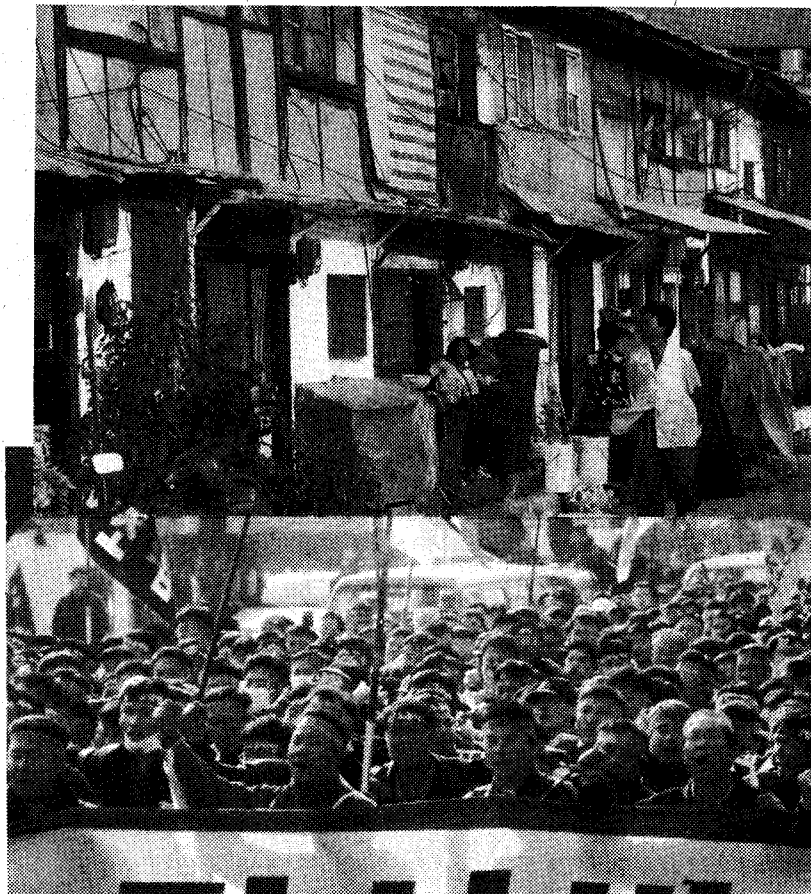
기존 여당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여당 지지율은 감소하고 있다. 대안부제,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DJ와 젊은 정치인 이미지의 이인제씨가 여당을 누르고 몇 개월째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보수층의 표를 의식한 이들의 보수화 물결은 한국정치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못하고 있다. 진정한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노동자, 자본가, 착취, 혁명... 대학이란 사회에 들어와서 한 번쯤 '스치듯'이라도 들었을 법한 단어들이다. 소위 '운동권'인 학생들은 특히나 이 부분에 민감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타난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라는 말은 계속 존재하며 작금에 있어서 그 명칭의 의미는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아직도 구태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현 사회에 있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집단이 현존하고 있다. 소위 진보진영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이루자며 민주노동당통합연맹(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후보로 내었으나 지지율이 낮아 진보진영 국민후보에 대한 일반의 기대와 투표성향이 괴리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이른바 '대안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들 노동자진영, 진보진영의 성격과 대안세력으로서 당위성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급속화된 빈부격차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후 미국의 원조로 다시 일어선 후 시작하여 박정희시대 때 적극적인 해외자본도입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외세의 자본이 도입됨에 따라 많은 부분이 예측되었으며 기회주의적인 자본가들은 이러한 원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시장경제의 원칙인 자유경쟁이 아닌 불평등경쟁이 계속됨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더욱 급속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외계층으로 대변되는 노동자, 농민, 도시민, 영세자본가들이 늘어났다. 결국 20세기 말인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1위라는 위치에 올랐으나 '삶에 질'에 있어선 북지예 산비율 세계 122위를 기록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익대변계층을 전국민을 포괄하는가 하면 중산층과 서민을 혼동하는 등 아무도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지



▲정치권에 소외된 빈민계층(위), 정치세력화 위한 노조의 정치운동(아래)

폭넓은 정치의식이 진보정당 밑거름

만다. 선거 때마다 개혁을 주장하지만 모두가 표를 의식한 '말뿐인 개혁'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소외계층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가리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 한다.

소외계층을 포함한 노동자계층은 정치·사회적 피해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자본가와 정치가가 지역주의로 명목과 정권획득을 위해 서민들을 등진, 모순이 가득한 현 사회를 만들었다면 이제 개혁의 차원에서, 세력교체를 위해서 그들이 사회를 바꿔가려 하는 것이다.

민중당의 실패

선거에 있어 이러한 진보진영(노동자 포함)이 '민중당'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조직적인 제도정치활동을 펼친 것은 5.16 이후였다. 당시 운동세력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통일성조차 확보하지 못했으며 당시 현실에 맞지 않았던 보수-혁신 대립구조를 상징함에 따라 진보진영의 정당운동에 오히려 큰 반작용만 야기했었다. 이후 87년 6월항

쟁과 7, 8, 9 노동자 대투쟁 이후 독자후보, 독자정당 건설 등 오도된 정치세력화의 시도들이 계속 있어왔다.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당에 앞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과를 제대로 수렴하고 정당을 준비할 정치조직이 결성되어 장기간 활동하지 못해 결국 대중적 지지기반을 가지지 못한 것이 지적된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권영길 민노총 위원장이 민중후보로 나온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올 초 총파업에서 투쟁일변도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신선한 이미지를 창출했고 70, 80년대 노동운동의 맹아기를 벗어나 96년 청년기에 해당하는 민노총의 설립으로 튼튼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호조전, 선불리 당을 만들기보다 과도기적 준비조직을 엮고 나타났다는 이유로 여느때의 민중후보와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에 있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 사회적 여건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큰 이유일 것이고 보수세력의 견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권영길 위원장의 출마는 애초에 당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

글 쓰는 순서

- ① 정권교체는 과연 필요한가
- ② DJ로 정권교체 타당성은?
- ③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정당
- ④ 97대선 경회인 설문조사

15대 대선과 개혁정치의 실종

개혁은 용도폐기된 정치구호인가

유 창 선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이제 개혁은 '용도폐기된 정치구호'에 불과한 것인가. 15대 대선정국은 보수일색의 분위기 속에서 개혁정치의 실종을 낳고 있다. 여야 각 정당들은 대통합의 정치, DJP연합, 보수대연합 등을 내걸고 보수세력의 규합에 주력할 뿐, 개혁성의 지나친 부각은 오히려 감표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보수세력 규합에 여념이 없는 것은 그 상징적인 예이다. 김대중 후보는 수구정치의 대표적인 김종필 후보와의 연합에 목을 매는가 하면,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부패정치·공작정치의 주역이었던 인물들을 영입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혹 김대중 후보의 집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동안 국민이 염원해왔던 민주적 정권교체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국민회의-자민련의 공동집권은 수구적 정치세력의 부활과 함께 3김정치라는 낡은 정치질서의 연장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3김정치 연장의 우려

그렇다고 해서 신한국민당 이회창 후보에게서 개혁의 대안을 기대하는 것도 물 건너간 일로 보인다. 한때 개혁적인 이미지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회창 후보의 부진은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를 포기하고 어설픈 보수화경쟁에 나선 데 따른 자업자득의 결과였다. '대통합의 정치', '개혁적 보수'로 포장되곤 하는 그의 노선에서 개혁이란 결국 구색맞추기용 구호를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5·6공세력이 주축이 된 이회창 후보의 당내 기반을 보면, 그가 설혹 집권한 다해도 김영삼 정부 수준의 개혁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문제는 다른 정치세력과 후보들에게서도 개혁의 대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인제 후보는 아무런 세력기반 없이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만으로 2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에겐 경선불복으로 민주주의의 기본규칙을 파괴하였다는 원죄가 따라다니고 있다. 더구나 그는 출마선언 이후 세대교체의 구호를 반복하는 것 이상의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새 시대의 지도자를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맞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는 어떠한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그는 침묵해왔다. 따라서 이인제 후보에게 있어서 개혁은 실질적 프로그램이 부재한, 이미지용의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



이 없다.

출마선언 이후 구정치세력과의 공존, 구정치인들의 영입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조순 후보는 사실 개혁성 여부를 말할 경우는 아니다. 3김정치 청산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개혁적 노선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로 조순 후보는 여러 정책면에서 보수적 정치인으로서의 면면을 보여왔다.

보수일색의 대선구도

한편 과거 3김정치 청산을 내걸어왔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가 대선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통추는 개혁의 대의에 따른 일관된 입장을 갖지 못함에도 그동안 신한국민당 이수성 지지-조순 지지-이인제 지지로 수시로 입장을 바꾸며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들어 통추내에는 독자후보론, 이인제-조순 통합론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권교체를 위해 김대중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자는 현실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통추의 이같은 혼란은 일관된 개혁노선 없이 정치적 입지 확보에만 매달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어떠한 정치세력도 21세기 한국의 대변화를 향한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에도 보수일색의 대선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비전과 정책의 경쟁없이 정략만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낳게 된다. 이런 선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도, 고용안정 대책도, 환경문제의 해결책도 별다른 쟁점이 되지 못한다.

대선정국에서의 이같은 개혁실종 현상은 그동안 개혁정치를 표방해왔던 정치세력들이 연대하지 못함에도 각개작전해 온 필연적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들어 이인제-조순-민주계-통추가 연대하는 개혁대연합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현실적 가능성도 문제이고, 무엇보다 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이 근거하지 않은 입지 확보용 전략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21세기 대변화의 시대를 앞두고 정작 개혁이 실종된 대선정국의 현실이 우리 정치의 불행을 말해주고 있다.

新세대 속의 信세대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혁해가는 新세대- 미래도전의 주역을 꿈꾸는 新세대-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서있는 新세대-
그중에서도 믿음을 가장 소중히 하는 信세대를 쌍용의 새 가족으로 모십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부문	모집학과	인원
관리사무직	상경계, 법정계, 어문계, 기타 인문사회계	350명
기술직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산학, 전산관련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영업직	상경계, 법정계, 전산관련학	

※ 1. 모집학과가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으나 관련학과 전공자인 경우 모집학과중 유사학과를 지정 지원할 수 있음.
2. 쌍용투자증권 관리사무직 및 영업직은 전학과 지원 가능.
3. 쌍용정보통신 관리사무직 상경계는 경영학, 영문계는 경영학·전산관련학 전공자에 한해 지원가능.
4. 남평도건 관리사무직 법정계는 법학과에 한해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단, 대학원 졸업자는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나. 4년제 정규대학 모집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1998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를 소장양식 및 OMR카드) 1부
※ 재중영서류(성적증명서, 보통대장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 등)는 면접시행이전 지원회사 요청시 제출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기 간: 1997년 10월 22일(수)~10월 25일(토) (평일 10:00~17:00, 토요일 10:00~13:00)
나. 교부처

지 역	교 부 처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시 중구 자동2가 쌍용빌딩 1층	02)270-5017
부산	부산시 중구 동광동3가 쌍용투자증권 부산지점(국제화재빌딩)	051)243-0707
대구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쌍용투자증권 대구지점(쌍용빌딩)	053)423-7700
광주	광주시 동구 남문로2가 쌍용투자증권 광주지점(쌍용빌딩)	062)232-0707
전주	전주시 경원동1가 103 쌍용투자증권 전주지점(산업은행3층)	0652)86-9911
대전	대전시 중구 선화동 쌍용투자증권 대전지점(소정빌딩)	042)255-9131
충주	충주시 북문로2가 72-1(쌍용투자증권빌딩)	0431)56-8200
춘천	강원도 춘천시 호지2동 658-2 쌍용화재보험 춘천영업소(춘천축협빌딩3층)	0361)53-7630
강릉	강릉시 옥전동 쌍용투자증권 강릉지점(대원생명빌딩)	0391)42-1777
제주	제주시 일도1동 쌍용투자증권 제주지점(한일은행빌딩)	064)52-8877

다. 접수처: 서울시 중구 자동2가 쌍용빌딩 18층 원서접수처(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3번출구)
※ 우편접수 주소: ① 100-641 서울시 중구영제국 서서울 4106호 쌍용인력관리위원회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가. 1997년 11월 5일부터 개별 우편통보 예정
나. 자동응답서비스 시스템(ARS) (02)700-2111/2422로도 확인 가능

7.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함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채용상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회사 인사부로 문의할 것
※ 인터넷 접수: (http://www.ssy.co.kr)

